

## 이만한 믿음을 -박목월-

주여

뜨겁게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귀가 멀고 석고처럼 굳어진 사지에  
새로운 생명의 피가 돌게 하고  
맑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새로운 하늘의 광명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신선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코로써  
스스로의 믿음을 증명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말씀만으로

육신의 병을 물리치게 하옵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갈릴리 바닷가에 나부끼는 무화과나무 잎새 같은  
신선한 삶을 누리게 하옵시고  
갓 피어오르는 불길 같은 믿음으로  
당신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여

열이 오른 이마를 짚어 주시는 당신의 손길,  
얇아 누운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당신의 은총  
눈을 감고도 뜬 것보다 더욱 선명하게  
당신을 뵈올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뜨겁게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활활 타오르는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의 불길로써 전날의 모든 것을 태우고  
새로운 생명의 피가 돌게 하고  
거듭나게 하소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신 당신의 말씀이  
제게도 임하는 뜨겁게 믿는 자가 되게 하소서.

\*박목월 시인,(1916-1978) <문자>을 통해 등단. 소위 청록파 또는 자연파 시인으로 <산도화>,<청담>,<무순> 등의 시집이 있고 <보라빛 소모>라는 자작시 해설집이 있습니다.